

'알 짝차고 맛이 일품' 진도 꽃게로 '서망항 북적북적'

조도만 해역, 하루 위판량 13~15t 기록 적조 없는 바다서 통발로 잡아올려 인기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이 '물 반 꽃게 반'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달 빠른 조업 시기 인데도 진도 서망항은 갓 잡아 올린 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꽃게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 외병·내병도 일원에서 끌어올리는 꽃게 통발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5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적당 300~350kg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 1일 위판량은 13~15t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순부터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가 이날 현재까지 118t, 위판고는 35억원이다. 이는 같은 시기 기준으로 ▲40t, 15억원(2020년) ▲26t, 10억원(2019년)

▲33t, 9억원(2018년)에 비해 4~5배 이상 많은 어획고를 달성하고 있다. 올해는 바다 평균 기온이 12~13도로 따뜻하고 조도면 해역에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면서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빨리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는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꽃게 최적의 서식 여건이 됐다.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입을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8일 현재 진도군수협 경매 위판 가격은 kg당 3만8천원~4만8천원이다. /이현일 기자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이 '물 반 꽃게 반'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달 빠른 조업 시기인데도 진도 서망항은 갓 잡아 올린 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진도군 제공

해남군, 청년심리지원 시작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무기력감과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5월부터 청년심리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읍면에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심리상담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사전 검사를 통해 개인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심리상담은 주1회 50분간 진행되며, 6개월간 월 4회씩 총 24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1회의 재관정을 통해 최대 1년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비용은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매월 카드에 담긴 바우처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4월중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과 이용자 선정 후 5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장흥군, 바이오 헬스 산업 세계시장 진출 박차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확정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지역 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해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이 지난 5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40억 원 등 90억 원을 들여 지역 거점 바이오메디컬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R&D 고도화 사업을 관내 연구기관 (재)천연자원연구센터를 주축으로 4개 기관이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는 반면, 자체 연구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악한 산업 현장을 감안해 도입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제품의 해외 진출 실증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 사업은 현재 농가가 수익성이

높은 식·의약 제품 천연 원재료인 차즈기, 멸꽃 등을 기업과 계약 재배해 전량 수매로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데, 앞으로 재배 품목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 각 수행기관별로 천연자원연구센터는 비임상 가능성 효력 시험과 천연물 식·의약품 GMP 생산을 지원하며, 순천대는 소재 표준화를 지원한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코스메틱 소재 생산을, KTR은 비임상 시험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 바이오 기업은 60건의 고도화된 R&D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에 전남도와 협력해 하드웨어 분야인 생물의약품산업벨트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김정근 기자

완도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 본격화 국비 96억 투입...배수문 신설·정비 및 배수로 확장

완도군이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상습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화읍 충도지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배수개선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돼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50ha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그동안 군은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지난 2019년 기본 조사 대상지

선정, 농어촌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완료했다. 올해 세부 실시계획을 거쳐 배수문 6개소 신설 및 정비, 배수로 1.3km 확장 등을 추진하며, 준공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창립한 김경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장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언론환경은 우리 기자들에게 멀티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혁명의 선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채널 다매체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된 반면 기존매체와 뉴미디어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의 언론과 언론인에게도 변화하지 않는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정론직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공입니다. 기자는 진실과 정의를 통해 시대를 깨우치고 이끌어가는데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새롭게 창립한 이유도 바로 이런 구심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전기협'은 새로운 미디어시대에 부합한 언론상을 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명과 소임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균형을 잡고 사회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언론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선배 언론인들이 불의나 부당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오셨듯이 우리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바르고 진실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고흥군, 혈압·혈당 측정기기 무료 대여 실시 자가관리 통해 심뇌혈관 질환 및 합병증 발생 예방

고흥군(군수 송귀근)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 유질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혈압·혈당기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대여 사업은 고혈압 당뇨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가정에서의 자가 관리를 통해 심뇌

혈관 질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혈압·혈당기기는 1개월 대여 후 1회 연장 가능하며 건강관리 수첩과 더불어 혈당스티커, 알콜 솜 등 소모품도 무료 지원한다. 또한, 대여 시 담당간호사가 기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혈압·혈당 측정 법,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관한 건강 상담 등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 심뇌혈관 질환 걱정 없는 고흥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 진료팀(061-830-6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석 기자

보성 득량면, 반찬 나눔봉사

보성군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공동위원장 김종남,최성복)는 지난 6일 득량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복순)와 연계해 '반찬은 사랑을 싣고' 밀반찬 나눔 봉사를 추진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행복나눔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이번 밀반찬 나눔 봉사에는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 위원과 여성자원봉사회원 20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열무김치와 장조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0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복순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에게 밀반찬 나눔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면서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돼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욱 기자

